

환경공학과



환경공학과에서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해양오염, 토지오염 등 각종 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의 특성과 측정방법, 정화방법 등을 배우고, 오염을 억제시켜 생활환경을 페적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부합니다. 오염물질 특성과 처리, 보전 등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. 에너지환경, 지구환경, 환경건설, 환경시스템, 환경학, 환경조경 등 보다 세분화된 환경 분야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학과에서 해당 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.

적성 및 흥미



화학이나 물리학 등 자연과목을 좋아하고, 환경문제나 자연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.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력과 체계적인 사고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 응용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환경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.

관련학과



- 환경공학과
- 지구환경과학과
- 환경보건학과
- 환경생명공학과
- 환경시스템공학과
- 환경학과
- 생태환경관광학부
- 해양환경학과

취득자격



- **국가자격** 대기환경기사, 수질환경기사, 토양환경기사, 소음진동기사, 폐기물처리기사, 자연생태복원기사 등



진출직업



연구/개발

- 대기환경기술자
- 도시계획 및 설계자
- 바이오에너지연구 및 개발자
- 소음진동기술자
- 수질환경기술자
- 자연과학시험원
- 토양환경공학기술자
- 폐기물처리기술자
- 환경 및 해양과학연구원
- 환경공학기술자
- 환경공학시험원



공학 기술직

- 도시생생전문가
- 기후변화전문가
-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
-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
- 환경영향평가원
- 환경컨설턴트
-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
- 기정예고컨설턴트
- 비파괴검사원
- 산업안전원
- 위험관리원
- 에너지진단전문가
- 친환경건축컨설턴트



법률

- 변리사
- 특허사무원



사회복지

- 사회단체활동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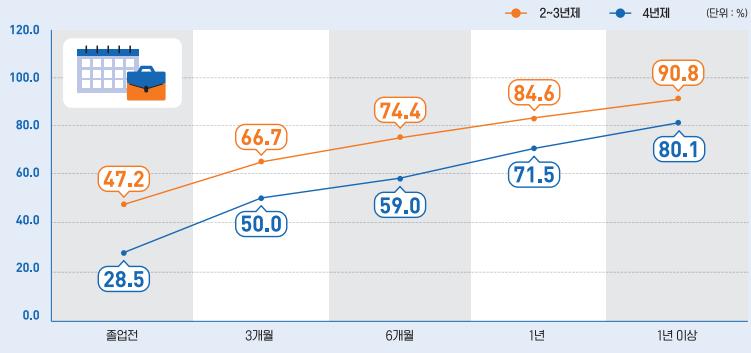
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

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(상위5개)

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
환경공학 시험원
보건위생·환경 검사원
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
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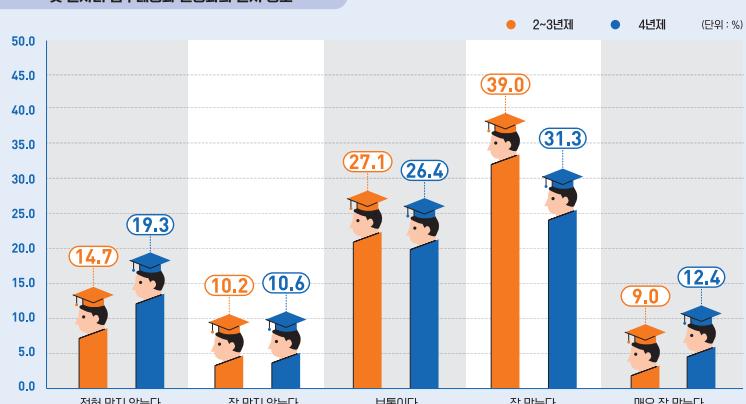
첫 일자리 입직 소요 기간(누적)



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



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



- ‘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’는 한국고용정보원의 “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(GOMS)”(정부공식통계 제327004호)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
-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매해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대학 졸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나, 2019년도 조사시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졸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했으며,
- 2014년부터 2018년 전문대 및 4년대, 교육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학과정보에서 제공하는 131개 학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.
- 전체 표본 가운데 매해 조사기준일(9월 1일) 당시 만35세 미만인 경우만 분석하였음.
- 첫 일자리란 “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”가 표집틀로 사용하는 교육개발원 취업통계의 출업년월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를 말함.
- 본 자료에 사용된 첫 일자리 진출직업의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“2018년 한국고용직업분류(KECO)” 세분류 기준임.
-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은 “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”的 조사 기준대학을 졸업 한 이후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기까지를 개월로 환산하여 구간화함.
- 첫 일자의 업무수준-교육수준 일치 정도, 업무내용-전공(주전공)과의 일치 정도는 기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업무 수준과 내용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한 내용임.